

환율과 국민 경제

천일영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환율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로서 외국 돈과 비교한 우리 돈의 값어치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고성능의 컴퓨터를 사려고 하면 우리 돈은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우리 돈을 달러로 바꾸어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내 전자 업체가 미국에 TV를 수출하여 받은 달러 대금으로 종업원의 봉급을 주고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돈으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무역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외국 돈과 우리 돈과의 교환이라는 문제가 뒤따르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나라 화폐간의 교환 비율이다. 즉, 외국 돈 1 달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현재 1,500 원이라는 것이다. 환율이란 이와 같이 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을 바꿀 때 적용되는 교환 비율을 말하고, 이 환율에 의거해서 나라와 나라간의 결제가 이루어진다.

외국 돈의 가격인 환율은 물건값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외국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외국 돈에 대한 수요는 외국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외국의 금융 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어나며, 공급은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이나 이전 거래 등에 의한 외환 수입이 있거나 우리의 금융 자산을 사기 위해 외국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은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동 결과까지 반영하고 있는 종합수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종합수지가 흑자이면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 돈이 나간 외국 돈보다 많아 외환 시장에서 외환 공급이 외환 수요를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외환 시장에서 사려고 하는 외국 돈보다 팔려고 하는 외국 돈이 많아짐에 따라 외국 돈이 흔해져서 환율은 내리게 된다. 반면에, 중

합수지가 적자이면 외환 수요가 외환 공급보다 많아져 외국 돈이 귀해짐에 따라 환율은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예상이나 중앙은행의 외환 시장 개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장기적으로는 물가 또는 나라간의 금리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외환 거래자는 우리 경제의 통화량 증가율이 다른 나라 경제보다 높을 경우 물가 상승으로 우리 돈의 가치가 외국 돈보다 떨어져 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을 경우에는 생산 물량이 확대되고 우리 경제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져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서 그 나라 통화를 대가로 하여 다른 나라의 통화를 매입하게 되면, 외환 시장에서 그 나라의 통화는 공급이 늘어나고 상대국의 통화는 수요가 증대되어, 단기적으로 그 나라 통화의 약세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물가가 외국보다 많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물건 가격이 상승하여

우리나라 돈의 가치(구매력)가 떨어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수입 수요는 증대된다. 따라서 외환의 수요가 많아져 우리나라 돈의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환율이 떨어져 원화 가치가 절상(원화 환율 하락)되면, 채산성 유지를 위하여 달러화로 표시한 수출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므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출 주문량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중국 및 동남아 등 후발개도국들의 급속한 공업화로 수출 가격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품질 향상없이 수출 가격만 올리게 되면 수출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수출 업자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수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화의 절상폭이 클 경우에는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수출 업자는 궁극적으로 수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어 고용 사정이 어렵게 된다.

반면에, 상품 수입에 있어서는 환율 하락분만큼 수입 상품 가격이 싸지게 되므로 수입품의 소비가 늘게 되어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

는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원화 절상의 효과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 원가를 하락시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국내 물가가 내려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부문은 원유, 철강재, 비철 금속 등 수입 원자재의 투입 비율이 크기 때문에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본을 외국으로부터 빌려왔는데,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 빚을 지고 있는 기업에게는 그만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원가를 절감시켜 일반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입 물가 하락을 통해 국내 물가 안정을 기할 수 있고 국내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경감되는 등의 좋은 점도 발생하게 된다.

한편, 이와 반대로 환율이 올라 원화 가

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수출 업체의 채산성이 좋아져 수출은 잘되고 수입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수입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원자재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싸진 가격으로도 수입할 수밖에 없어 수입 감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며 외국 빚을 지고 있는 기업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환차손)이 가중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환율 변동은 경제 여러 분야에 이해가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환율은 가능한 한 중립적 효과를 가지도록 실세를 반영시켜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